

국제부품소재산업 전시회 성료

국제 부품소재산업전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5월 25-28일 4일간 KINTEX에서 열린 <2011 국제부품·소재산업전>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인디아, 유럽 등 9개국에서 국내시장에 관심있는 유력 바이어 70여명이 참여해 국내기업과 1대1 수출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전자, 부품, 소재 등 각 산업분야 해외 바이어들의 예약 상담과 현장 상담 총 100여건이 성황리에 진행돼 참가기업들이 실질적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물꼬를 텄다는 후문이다.

특히, 25일 개최된 대·중소기업 구매 상담회에서는 50여개 주요 대기업과 300여개의 중소기업, 주요 공공기관이 사전 매칭을 통해 참여해 1대1 구매 상담을 진행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7일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화학소재 분야 부품·소재 신뢰성평가 지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의 부품·소재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세미나 및 전문화된 기술컨설팅도 진행됐다.

전시회에 참석한 한 전도성 소재 개발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상담의 장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게 자사 기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며 “다만, 상담예약이 조기 마감된 곳도 더러 있어 사전예약에 적극적이었던 곳이 더 많은 기회를 잡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부품소재산업전은 KINTEX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경연전람이 공동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경기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6회째를 맞았다.

부품·소재 핵심기술의 판로 지원 및 수출 확대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국내 최대 부품·소재 전문 전시회로 2011년에는 150사의 400개 부스가 설치됐다. <김지연 연구원>

<화학저널 2011/05/30>